

#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익산시 관리부실 탓”

### 감사원,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부당 수리 등 지적 해당 공무원 징계 요구...익산시 “감사 결과 수용”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합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를 키운 한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합라면 장점마을 주민 등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 5가지 사항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익산시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익산시는 퇴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인근 비료공장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했다.

수분이 많은 주정박 등 식물성 폐기물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용하게 됐고, 고온건조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또 이 공장의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과정에서

의 현지 확인 소홀로 인해 연초박이 유기질비료로 계속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고온건조과정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을 발생시키는 연초박이 미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공장에 대해 매년 2회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 함에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총 2회만 하고 이마저도 부실하게 진행된 점이 적발됐다.

특히 이 공장의 대기배출시설을 2016년 말까지 8회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그동안의 배출시설 문제 등을 뒤늦게 지적·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

배출관 점검과 건조분말 형태의 미신고 먼지 배출 시설을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공장 내·외부로 대기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했다.

이 공장을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채 민원발생 시에만 점검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형식적인 점검에만 치중, 소홀했다는 것도 지적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법 규정 준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일인만큼 통보대로 징계하겠다”고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익산=유정명 기자 jyj@kwangju.co.kr



### ‘쌍화차거리 온라인 서포터즈’ 정읍시, 지역민 10명 구성 발대

정읍시는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인 ‘2020 쌍화차거리 온라인 서포터즈’를 지난 7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

서포터즈단은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특화거리 조성을 완료한 쌍화차거리의 활성화와 위해 지역민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0월까지 쌍화차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공식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이 거리를 탐방하고 다양한 음식 등을 체험한 후 사진과 영상, 기사(블로그)를 통해 쌍화차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정읍시는 서포터즈단의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활동을 통해 홍보 마케팅에 활용한다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쌍화차거리 온라인 서포터즈의 활약으로 쌍화차거리가 활기를 되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멋진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쌍화차거리는 정읍경찰서에서 정읍세무서까지 이어지는 길목으로 14개소의 전통찻집이 위치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 고통자복지주택 176억 들여 126세대 조성 사회복지시설도...내년 완공



고창군이 고통자 친화형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신개념 고통자복지주택의 건축설계와 기반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통자복지주택사업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시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거쳐 국토부 최종 승인에 따라 올해 초부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감도>

총사업비는 국비 126억원, 군비 44억원, LH 6억원 등 176억원이 투입되며 8평형 54세대, 10평형 72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주거공간에는 문턱제거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고, 저층부에는 여가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축설계와 시공, 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고창군은 사업부지 제공과 도로개설, 상·하수도관 설치 등 기반조성을 담당하고 사업 준공 후 복지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황한규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고통자복지주택이 건설되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100세대대 누구나 편하게 머물고 싶은 고창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버스 타고 경치 즐기자”...순창군 ‘지붕 개방 풍경버스’ 눈길

#### 강천산·전통고추장 마을 등 관광명소 시티투어 운행 시작

순창군은 지난 주말인 6일부터 시티투어 풍경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풍경버스는 아름다운 풍경을 차 안에서 관람하도록 버스 지붕과 뒤 칸을 개방했다.

풍경버스는 강천산,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체계산 및 270m 길이의 출렁다리 등 순창 지역 주요 관광명소를 순회한다.

프랑스인 전문 여행가이드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관광 안내를 한다.

풍경버스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6회 운행한다.

요금은 성인 2000원에 만 18세 이하 국민, 군인, 장애인 1000원이다. 순창군민은 무료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관광이 이뤄지도록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해 풍경버스를 운행한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정기투어 외에 야간, 계절, 체험, 인문학, 심진강, 벚꽃 등 다양한 여행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순창=장영근 기자 jyj@kwangju.co.kr



순창군이 버스 지붕과 뒤칸이 개방돼 차안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시티투어 풍경버스’를 지난 6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 침체 군산항 경기활력 불어넣는다

#### 군산해수청, 항만 인프라 등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제) 전북연구원에 의해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총 9000여만원이 투입되는 이 용역은 ‘군산항 활성화 종합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기간은 내년 1월30일까지이다.

군산해수청은 활성화 종합전략에 ▲서해권 물류 중심을 선도하는 항만 인프라 ▲특화 항만 육성을 통한 신(新)성장동력 거점화 ▲항만 기능 재편과

배후산업 맞춤형 물류기반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항만공간 조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군산항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항만 개발 ▲특성과 화물 수요분석 및 처리시설 공급계획 ▲군산항 항만기능 재정비 및 시급한 3개 과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용역 일정에 따라 과제별 워킹그룹 활동을 병행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 실수요자 위주의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실행방안이 가시화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지속된 경제여건 악화로 침체된 군산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남원시,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국제인증 획득...“경쟁력 확보”

남원시는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이 유럽화장품원료협회로부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인증은 국내 화장품 원료산업과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원료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중요한 인증으로 꼽히고 있다.

수이케이는 화장품 원료 물질을 대량으로 추출해 화장품 업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인증 획득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생산하는 모든 원료는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남원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천연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도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원료 생산시설 수탁운영사인 김경희 수이케이 대표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화장품 원료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면서 “남원 지리산권 자원식물을 이용한 천연 화장품 원료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